



한국인 7대암 가이드라인 제시

암학회, 폐암·전립선암 추가 대국민 캠페인

암학회가 한국인의 호발암에 대한 검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한암학회(이사장 박찬일)는 10일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을 추가한 한국인의 7개 호발암에 대한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을 재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관련 학회가 제정한 기준 안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추가한 것으로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학회가 발표한 7대암 가이드라인에는 검진대상과 검진시기, 주기 및 검사방법 등이 자세히 제시돼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폐암의 경우, 흡연경력이 오래된 고위험군에서 정기적인 저선량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폐암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제기됐으며, 전립선암은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검

◇한국인 7대암 조기검진 가이드라인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남녀 공통)	2 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간 암	·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기타 간경변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인 경우 ·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과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가 모두 음성인 간경변 및 기타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	복부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대장암	50세 이상(남녀 공통)	5~10년 매 월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 에스겔장경검사
유방암	30세 이상 여성	2 년	유방자기검진
	35세 이상 여성	1~2년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여성	1 년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촬영술
	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 모든 여성(단, 성경험이 없을 경우는 제외)	1 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폐 암	45세 이상의 고위험군	1 년	흉부X선 사진과 저선량흉부전산화단층사진
전립선암	50세 이상 남성	1 년	전립선특이항원(PSA)과 직장수지검사

사(PSA)와 직장 수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박찬일 이사장(서울의대 치료방사선과)은 "현재 암으로 인한 직·간접비용이 약 19조원에 이르러 개인과 국가 전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암을 발견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암학회는 이번달을 '암의 달'로 정하고 '癌중모색,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국민 희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의학신문사 2004. 6. 10)

보육비용 50% 정부 지원

2008년까지 전체 보육대상 아동(0~만 5세)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정부 부담 비율은 30% 정도다. 또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수혜 아동수도 전체 아동의 24%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여성부와 함께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별로 육아지원을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0세 아를 둔 취업모는 각각의 가정에 파견되는 가정보육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유아교육교사나 보육교사, 간호사 중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가정보육교사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관리되며, 현재의 차등보육료 지원수준으로 지원되고 내년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영아전담시설의 교사대 아동 비율도 현행 1대 5에서 1대 3으로 개선된다. 0~4세 아의 경우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통해 현재 22.6%인 지원대상 아동을 원칙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대상 아동의 70%)까지 확대한다.

만 5세아는 대상아동의 약 70%가 무상지원을 받는다. 6~8세아 보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프로그램인 '방과후 교





실'을 대폭 늘린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 교 1학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180개 학교로 늘리는 등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50%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보다는 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시스템도 아동지원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시설지원은 국공립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성부가 내뿜던 평가인증제와 교사자격증제도 내년부터의 시범운영을 거쳐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12일부터 복지부에서 보육업무를 이관 받는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차등보육료 50%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재확인"이라며 "올 가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 연도별 계획과 세부사항, 예산마련 방침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육정책이 구체화되면 보육지원 예산지원을 임기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경제적 능력 등으로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이나 지방이 좀더 혜택을 받는 육아지원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2004. 6. 11)

흡연, 당뇨병 위험 높아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암과 심장병 뿐 아니라 이제는 성인 당뇨병인 제2형 당뇨병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기간의 흡연은 인슐린 저항을 증가시켜 성인 당뇨병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2건의 연구보고서가 7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연례회의에서 발표되었다고 헬스데이 뉴스 인터넛판이 전했다.

노르웨이 트론드하임 공과대학의 발데마르 그릴 박사는 이 중 한 연구보고서에서 성인남녀 3만 9천명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성별, 연령, 체중, 운동

습관, 음주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그릴 박사는 덧붙였다.

그릴 박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니코틴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저항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물실험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예 신치 박사는 ADA회의에서 발표한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노인 9천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 오래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50%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를 피운 햇수가 길수록 당뇨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이 결과는 연령, 인종, 체중 등 다른 당뇨병 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학회 임상담당 부회장인 내셔널 클라크 박사는 이 결과에 다소 놀랐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당뇨병 요인을 가운데 흡연이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6. 8)

[식중독 대처요령] 한 두끼정도 굶고 지사제 복용 말라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 2~4시간, 장염 비브리오균은 12~48시간, 살모넬라균은 6~72시간, O-157균은 3~9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다. 웬만한 식중독은 한 두끼 금식하고 수분과 칼로리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하루 정도만에 대부분 회복된다. 구토는 위 속의 독소를, 설사는 장 속의 독소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려는 인체의 자연적인 방어기전이므로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해선 안 된다.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질균이나 O-157균은 신부전이나 패혈증 등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설사에 피나 끈끈한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엔 즉시 병원에 달려가야 한다.

(조선일보 2004. 6. 15) 77